

저글링·줄타기·재즈·레게...주말 도심이 '들썩'

주말 도심이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로 들썩인다. 세계 거리 예술의 개척자들의 공연과 재즈와 국악, 레게 등 다채로운 음악 여행이 펼쳐진다.

먼저 2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광주 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한국, 미국 등 5개국 대표 아티스트들의 흥겨운 무대가 예정돼 있다.

저글링, 코미디쇼, 자전거 곡예, 스트리트 퍼포먼스, 줄타기, 곡예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들 아티스트들은 미국 서커스 예술의 선구자 아론 제셉, 일본 스트리트 퍼포먼스 1인자 퍼포머 몽크, 독일 세계 거리마술 대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한국 코미디 마술사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 코믹버블퍼포먼스 전문가인 한국의 '팀 클라운' 등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대표하는 다섯 팀의 아티스트들은 '거리 공연' 장르를 새롭게 만든 개척자들이 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맞춰 새롭게 기획했다는 점이 눈이 띈다.

스트리트 퍼포먼서인 한국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는 코미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최근에는 '이상한 마술사의 웃긴 탈출'로 세계 곳곳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는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공연으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의 '팀 클라운'은 코믹버블퍼포먼스 아티스트. 웃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는 이번에 마임, 버블, 저글링이 혼합된 공연을 선사한다.

미국의 '아론 제셉'은 곤봉, 불봉, 칼 등을 사용하는 저글링 공연가이자 서커스 예술가이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첩보원으로 변신한다.

저글링 공연도 예정돼 있다. 동양적인 배경 음악에 구슬모기를 결합한 '프로페셔널 저글링'은 일품이다. 진행 시간 내내 관객의 시선을 빼앗는 박진감 넘치는 공연은 흥겨움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에니메이션과 게임의 주인공 마리오를 통해 웃음과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이는 시



아코디언 마티나스 레비츠키



대만 '슈퍼 마리오'



일본 '퍼포머 몽크'



19~20일 오후 7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ACC 아트 트레일러'가 열린다.

5개국 거리예술가 참여 20일 5·18광장서 프린지페스티벌

19~20일 문화전당서 음악여행 'ACC 아트 트레일러'

20일 대인예술시장 '화양영화' 주제 인형극·춤판 벌려

간도 있다. 대만의 슈퍼 마리오 팀. 이들은 장난기 가득한 마리오 컨셉으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중국 서커스팀은 자전거, 곡예, 줄타기, 막대기 곡예, 균형잡기 등 고난이도의 화려한 기술을 선사한다.

공식 공연을 하루 앞둔 19일에는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프리 버스킹' 무대를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fringefestiva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3-0410.

19일과 20일 오후 7시부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리는 'ACC 아트 트레일러'를 통해서 재즈와 한국 국악, 레게 등 다채로운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번 행사는 어쿠스틱 음악에서 ACC 미디어 월을 활용한 VJ 쇼와

오는 31일과 11월21일 오후 2시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무료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서 작가의 도자기공예 이야기와 함께 재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손수건, 티매트 등을 만든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차 체험은 30일까지, 2차는 11월 19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gjwf.or.kr)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3.

프랑스 자수 공예작가 서경숙씨가 오는 12월14일까지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여성재단 8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전시회를 연다. (사진)

프랑스 자수 공예작가 서경숙 전시회

12월 14일까지 광주여성재단

31일·11월 21일 무료 체험

프랑스 자수 공예작가 서경숙씨가 오는 12월14일까지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여성재단 8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전시회를 연다. (사진)

재단의 '2018년 작은전시 수공예작가 공모'에 선정된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천과 색실을 이용해 만든 손수건, 티매트(Tea Mat), 인테리어 소품 등 30여 개 작품을 선보인다.

프랑스 자수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다양한 기법으로 생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예술품들이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나는 DJ 퍼포먼스를 공연한다.

첫날에는 밴드 '무드리스트'의 재즈 선율로 문을 열고 '입과손스튜디오'는 가야금 연주와 창곡을 선보인다. 리투아니아 출신 아코디언 연주자 마티나스 레비츠키는 발틱 반도와 스칸디나비아 지역 클래식과 대중적 팝송을 한국의 스트링 앙상블과 함께 무대에 올린다. 또 광주 출신으로 세계 최대 음악축제인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2년 연속 초청받으며 주목받은 싱어 송라이터 최고은의 무대도 기대된다.

다음날에는 광주의 어쿠스틱 밴드 '광주약국'과 '홍대 신예'로 각광받고 있는 밴드 '아디오스 오디오'가 흥을 돋운다. 레게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는 한국적 색채를 루츠 레게 음악에 담아낸다.

공연은 ACC 미디어월을 활용한 VJ쇼와 DJ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DJ KOO(구준엽)의 'DJ-ing'과 미디어 월 VJ-ing을 결합한 이번 퍼포먼스는 강렬한 음악과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전당 구름다리(플라자브릿지)와 하늘마당 일대에서는 'ACC 아시아 컬처마켓'이 열려 청년들의 특색 있는 창업아이템을 엿볼 수 있다. 문의 1899-5566.

20일 저녁 열리는 대인예술시장 별장은 '화양영화(花樣映畵)'를 주제로 영화를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극단 도깨비가 인형극 공연을 펼치고 아마다덴스쿠르의 역동적인 춤판도 벌어진다. 'Hail&션'의 미디어아트 디제잉 퍼포먼스 '터치'도 예술시장의 활기를 더한다.

또 별장은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기획 '대인 Pick!' 3종 세트를 선보인다. 먼저 대인문화장작소 지음에서는 광주 소재 4개 대학(광주대, 조선대, 호남대, 전남대) 예술전공분야 학생들을 초대해 '차세대 예술가 기획전:어텐션'을 열고 있다. 지역작가 100명은 작품을 실사 출력한 '백면화상'전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33-142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준태 시인 '광주로 가는 길' 日서 출간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등 70편 실려

"우리 이제 그리운 광주에 갑니다/ 남쪽의 사랑 남쪽의 부동켜 안음/ 어머니와 아버지의 광주에 갑니다/ 가슴에 쌓인 하늘 가슴으로 펼쳐이며/ 가슴에 담기는 바다 가슴으로 출렁이며/ 우리 이제 그리운 광주에 갑니다..." ('광주로 가는 길') 중에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로 오월 광주의 참상을 알린 김준태 시인. 그의 신작 시집 '광주로 가는 길'이 최근 일본에서 출간돼 눈길을 끈다.

문병란 시집을 일본에 소개한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번역을 맡았으며 후바이사(風媒社) 출판사에서 발간됐다.

시집 출간은 지난해 10월 주오대에서 개최한 한일심포지엄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준태 시인이 행사에 참여해 문학·출판계 관계자 등과 작품집 발간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진전됐다.

시집은 '아아 광주여, 새들의 노래, 희망과 진실, 5월에서 통일로'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알린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비롯해 '잠깨를 탈면서',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국밥과 희망' 등 70편이 실려 있다.

특히 김준태 시인의 주오대학 심포지엄 강연록, 김정훈 교수의 해설 등이 담겨 있어 시집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다.

김준태 시인은 서문에서 올해를 '통일과정시대 원년'로 규정한다. 작금의 평화 분위기를 반드시 살려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



언 이후, 남과 북이 주체가 돼 분단의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하늘과 땅의 준

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번역을 한 김정훈 교수는 해설에서 당시 광주의 상황과 일본의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시의 배경과 탄압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쟁의 비극, 생명 존중, 평화의 중요성, 5월에서 통일로'를 강조하는 김준태 문학이 국경을 초월해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태 시인은 1980년 당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바 있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과 5·18기념재단 이사장(10대)을 역임했으며 조선대 문예창작과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발굴 조사

남한 내 최대 규모 증석분

남한 내 최대 규모인 증석분(甕石墳) 형태의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발굴이 시작된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마한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발굴 조사를 1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조사는 전남도가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가 확정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3단계, 15개 세부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을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진행됐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은 문화재연구소가 2014년 시굴조사 한 결과 축조방식은 자연구릉을 이용해 정지 및 성토됐고, 표면은 돌로 덮은 증석분(甕石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HANNEL

채널A 미니시리즈

열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